

# 책에 파묻힌 이들을 위한 공간의 공학

건축가의 눈으로 읽은 독서공간

박희영 | 목원대 건축도시공학부 겸임교수

독서공간은 사람이 책을 읽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어떤 공간으로 연출되느냐에 따라 책을 읽는 마음이 달라질 것이며, 책을 읽는 장소가 개인서재든 서점이든 공공도서관이든 내가 책을 읽을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나만의 독서공간이 될 것이다.

독일 유학시절 나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줬던 것 가운데 하나가 도서관에서 책에 파묻혀 자료를 찾는 것이었다. 내가 유학했던 곳은 독일 남부 지방 칼스루헤(Karlsruhe)에 있는 칼스루헤 공과대학(Technische Hochschule Karlsruhe)인데 독일 대학엔 중앙도서관이 있지만, 한국의 대학 중앙도서관 같이 모든 학과의 책이 집중돼 그곳에 가야만 책을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특성화된 도서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중앙도서관은 기초적이고 일반학생들에게 다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의 책들을 보유해 모든 학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돼 있다. 각각의 전공서적들은 그 학과에 딸린 전문도서관에 비치돼 있는데, 건축학과를 예로 들면, 건축에 관련된 책을 보고 싶다면 건축학과에 딸린 도서관에 가서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각 연구소에 작은 도서관들이 딸려 있어 각 연구실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 물론 모든 책들이 중앙 전산으로 연결돼 찾고 싶은 책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화돼 있다. 신간은 물론 옛 자료들까지 잘 보관돼 있어 원하면 한도 끝도 없이 자료들 속에 파묻혀 행복해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던 독서공간은, 고서 냄새가 나는 서고 사이에서 책을 하나 찾아서는 쭈그리고 앉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책을 읽던 그 '서고 사이 좁은 공간'이었다. 웬지 그곳에

있으면 시간을 초월하는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였다.

'공간'이라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경계성을 이루는 공간이 있다. 공간을 구획하고 경계하는 물리적 요소로는 벽이나 기둥, 가구 등이 있는데, 이런 요소는 내외부를 구획·분할하면서 소음과 시야를 차단해 심신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외부로부터 보안성을 유지하는 그 쓰임새로 볼 때 필요불가분의 건축요소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좋아했던 '서고 사이의 좁은 공간'은 나에게 충분한 독서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외로움을 잊고 누리던 나만의 안식처였다.

## 독서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설계

대학의 중앙도서관뿐 아니라 주립도서관도 좋은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건축과 학생이었던 나도 자주 가서 책을 찾아보고 대출하곤 했다.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도서관이었던 칼스루헤에 있는 주립도서관(Badenwuerttemberg 주)은 건축가 옹어스(O. M. Ungers)가 설계한 것으로, 주인입 부분이 다른 대형 도서관과는 달리 작은 회랑으로 돼 있고, 높이가 높지 않아 들어설 때 기분이 참 좋다. 사람들에게 빨리 도서관으로 들어가보고 싶게 심리적인 동기부여를 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1층은 안내, 대출·반납, 도서목록 열람실, 카

페 등 일반인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로 돼 있고 일반 열람실은 2층에 있다. 일반 참고도서는 대부분 2층에 있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전문적인 책들이 보관돼 있어 일반인들이 도서목록을 보고 직접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서 내가 좋게 느꼈던 것은 일반인들이 잡지나 신문, 일반서적들을 볼 수 있는 2층 중앙의 열람실인데, 층고가 높고 천장을 통해 자연채광이 돼 넓고 환한 공간에서 책을 맘껏 읽을 수 있다. 창가 쪽엔 책들이 있는 서고와 함께 작은 책상과 의자를 뒤 책을 찾으면 곧바로 앉아서 읽을 수 있다. 이 부분의 층고는 낮아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찾고 읽을 수 있다. 미디어 자료실에서는 직접 듣고 대출할 수 있게 시청각실의 시설도 완벽하다. 고서들의 냄새가 풍기는 신비함은 없지만 개방돼 있는 느낌에 일반 시민들도 즐겨 찾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 같이 독서공간은 사람이 책을 읽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어떤 공간으로 연출되느냐에 따라 책을 읽는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책을 읽는 장소가 개인 서재든 서점이든 공공도서관이든 내가 책을 읽을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나만의 독서공간이 될 것이고 많은 고서, 신서, 동서양서 속을 헤엄치며 맘껏 진리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